

제7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B2B 추진 결의



본회는 지난 9월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7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B2B(Business To Business ; 회원사간 거래)를 추진키로 했다.

본회는 B2B 거래시 회원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계의 과부족물량이 외부 유통시장을 통해 거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가격등락 요인을 배제해 불필요한 비용절감과 닭고기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위원들은 B2B를 시행하는 데 이의는 없으나 각 회원사에서는 항생제 잔류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37호, '09. 7. 8)에 따르면 소비자 판매가격 표시대상 품목에 축산 물이 추가되므로 닭고기(통닭) 판매 시 'OOG 당 가격 ○○원' 등 중량(g) 단위가격과 판매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는데 반해 생산자인 계열주체는 호수로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중

량표기시 감량을 감안해 오차범위를 표시하도록 해야 하며 생산자가 유통점(대리점 등)에 판매할 때에도 중량단위 거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6차 유통위원회 개최

업계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9월 9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6차 유통위원회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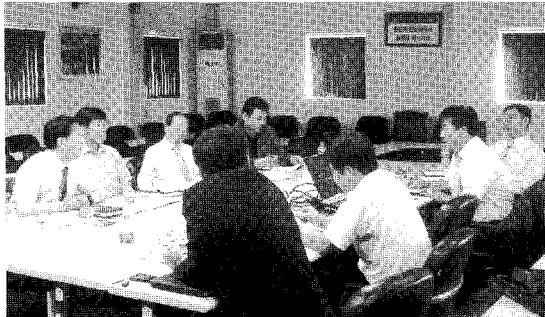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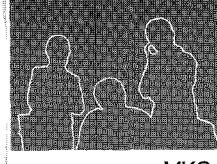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중순 이후부터 육계 가격이 생산비 이하에서 형성되고 있어 업계가 어려운 상황인데다 종계계군의 환우가 만연되어 전반적으로 생산물량이 과잉되고 있으므로 종계계군의 도태가 절실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제3차 계열생산위원회 개최

신임 위원장에 (주)하림 정문성 상무 선임

본회는 지난 9월 3일 전북 익산 소재 (주)하림 사육부 회의실에서 제3차 계열생산위원회를 갖고 육계 사양관리 매뉴얼 단행본 발간, 종계생산 위원회 운영, 초생주생산 이력제 관련 사항 등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위원장인 (주)마니커 최충집 상무가 내부 인사에 의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주)하림 정문성 상무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최충집 상무의 후임 발령자인 (주)마니커 이찬현 상무가 앞으로 계열생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육계 사양관리 매뉴얼 제작 관련

제3차 편집위원회 개최

본회는 지난 9월 10일 대전 소재 천하제일사료 회의실에서 육계 사양관리 매뉴얼 제작 관련 편집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편집위원들은 동 매뉴얼에 게재 할 내용을 분류하여 한 주제씩 맡아 집필 후 협회로 제출키로 했다.

이 자료가 모두 취합되면 이달 중 마무리 작업을 위한 편집위원 워크샵을 갖고 최종적인 내용 검토를 거쳐 육계 사양관리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종계 도태장려금 지급 기준 조정 방안 알림

정액지급에서 주령별 시세 등 고려 지급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종계장의 추백리 및 가금 티푸스 검사에 따른 합리적 도태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종계장 도태장려금 지급기준 조정방안’을 마련해 각 시·도 및 관련 단체에 시달했다.

이번에 조정되는 주요 내용은 종계의 양성계군에 대한 도태장려금 지급대상을 산란 개시 전 검사에서 추가(산란이후) 검사 시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며, 현행 정액지급(5,000원) 되던 것을 주령별 시세 등을 고려한 합리적 도태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반영해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며, 시·도에서는 양성 계군의 도태 시 동 고시에 따라 조치할 것이므로 회원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숙지해 업무에 참조하면 된다.

제5차 편집위원회 개최

10·11월호 편집계획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9월 3일 본회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5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월간 닭고기 주요 편집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편집위원회에서는 월간 닭고기 전월호 평가와 아울러 10월, 11월호 특집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지난 9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보다 소비량이 다소 감소했지만 닭고기의 경우 오히려 증가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으로 닭고기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찾자는 의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위주로 한 10월호 특집 주제를 선정했다.